

STAR CRAFT III



BLIZZARD
ENTERTAINMENT

하나의 종족, 하나의 목적

"고위 집행관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셀렌디스는 이 말을 한 프로토스를 살펴보았다. 그는 사원 광장의 새로 깐 돌바닥 위에 한쪽 무릎을 꿇은 채, 상태로는 새것 같지만 디자인으로는 오래되어 보이는 경갑옷을 입고 있었다. 최근 기사들 사이에서, 아니 이전의 기사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황금기풍 갑옷이었다. 셀렌디스는 그런 역행하는 스타일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녀의 갑옷은, 그 호리호리한 체격에 어울리는 우아하고 현대적인 선으로 이루어진 새것 같은 물건이었다. "전투가 있었느냐?"

"아닙니다, 집행관님." 그의 어조와 자세, 어디 하나 옳은 느낌이 들지 않았다. 확신이 없군. 셀렌디스는 한때 칼라를 통해 가능했던 감정의 연결 없이도 거기까지는 파악할 수 있었다. 연결이 끊어진 후로 꽤 시간이 흘렀는데도, 아직도 칼라이를 수천 년간 연결했던 텔레파시를 통한 합일의 빈자리가 느껴졌다. 순식간에 공감미 이루어지고 하나의 목적 의식을 가질 수 있었던 시절. 그 대신 그들은 새로운 감정들을 헤쳐 나아가야 했다. 손쉬운 기만과 깊은 고독, 오해. 또한 느리고 번거로운 질문과 신체 언어라는 과정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려고 한참 동안 애를 써야 했다.

지금도 질문을 해야 했다. 우주에서 가장 확실한 ‘죽음’을 놓고, 왜 확신이 없는 것인지? 전투가 없었다면, 왜 노령이나 질병 문제를 내게까지 가져온 것인지? 프로토스는 불멸의 종족이 아니었고, 죽음은 그들의 수가 이미 많이 줄었든 말든 개의치 않았다. "왜 내게 왔지?"

"이상한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죽음입니다."

셀렌디스는 주위에서 끝없이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알데라가 재건되고 있는 소리, 도시가 살아나는 소리였다. 새 건물들이 오후의 뜨거운 햇빛을 받아 반짝거렸고, 보이지도 않을 만큼 멀리서 움직이는 드론과 감시자들에게서 섬광이 튀었다. 갈등으로 점철되었던 여러 태양 회귀가 지난 후, 몇 차례의(벌써 그렇게 되었던가?) 태양 회귀 동안 누린 부산스러운 평화는 아직도 생소하게 느껴졌다. 평화란 타고난 전사들에게 어울리는 운명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들은 평화라는 상태를 수호하기 위해 태어났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결론을 내리려면, 운명이 그린 큰 그림을 더 보아야 할지도 모른다. 셀렌디스는 씩씩하게 생각했다. "보여 나오."

그들은 알데라 외곽에 붙은 조그만 마을로 차원이동했다. 계곡의 완만한 분지는 이미, 주위의 산이 드리운 그림자에 반쯤 덮여 있었다. 알데라의 시끌벅적한 분위기에 비하면 이곳은 묘하게 고요하고 유난히 허름했다. 집은 아직도 반이 넘게 가건물이었다.

이미 얼마 전에 재건축되었어야 정상이었다. 아마도 그 임무를 맡았어야 했을 드론을 포함하는 듯한 드론 몇몇이 땅 위에 목적 없이 떠 있었다. 시야에 들어오는 소수의 프로토스들은 집 앞이나 나무 밑에 앉아서, 그들이 지나가는 것을 무심히 쳐다보았다.

칼라에 접촉하는 것은, 셀렌디스에게 전투 반사 반응만큼이나 깊이 각인된 습관이었다. 그녀는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기 위해 칼라에 접촉하려 했다. 그리고 자신을 맞이하는 공허에 놀란 숨을 들이켰다. 완벽한 찌르기 공격을 했다가 방패에 막힌 기분이었다.

초조해하는 프로토스는 가건물 중 하나로 향했다. 그가 문을 열기도 전부터, 공기에서 짙은 피 냄새가 풍겼다. 안에는 검게 말라붙은 피 웅덩이 속에 남자 칼라이의 뒤틀린 몸뚱이가 널브러져 있었다.

셀렌디스도 죽음에는 익숙했지만, 이건 예상했던 바와는 전혀 달랐다. 사이오닉 검은 베면서 동시에 상처를 소작하기 때문에, 프로토스 간의 전투는 일반적으로 유혈 사태로 이어지지 않는다. 이 정도의 피는 저그와 싸웠던 전장에서밖에 보지 못했다. 하지만 여기서는 외계 종족의 악취는 나지 않았다. 그녀는 시신 곁에 쫓그리고 앉아 상처들의 이야기를 읽었다. 깊은 자상이 사체의 목과 가슴을 가로지르고, 양팔의 아래위로 달리며, 그가 몸에 걸친 소박한 로브를 갈가리 찢어 놓았다.

셀렌디스는 조심스레 시신의 한쪽 손을 들어 올렸다. 죽은 후에 근육의 경직이 풀릴 만큼 시간이 지났다. 손은 마른 피에 뒤덮였고, 손톱에는 띠처럼 찢어진 자신의 살점이 끼어 있었다. 지금껏 수천 번의 끔찍한 죽음을 목격하고 그중 일부는 자신이 초래하기도 했던 셀렌디스는, 자신이 죽음에는 이제 초연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도 그 광경에는 구역질이 내려 했다. "스스로 했군."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잘못되었어요."

"이자의 이름을 아나?"

"모릅니다. 근처에 사는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한 후에 이 옆을 지나가다가 피 냄새를 맡았을 뿐입니다."

"네가 확인하기 전에는 아무도 들여다볼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건가." 그녀는 죽은 칼라이의 손을 내려놓았다. 시신의 목 부근에 고인 피와 그림자 속에서 뭔가가 반짝였다. 그녀는 시신을 옆으로 밀었다. 목 뒤쪽의 손톱 자국은 유독 깊었다. 칼라이가 신경삭의 밑동을 만지려고 한 것처럼. 셀렌디스가 처음에 칼라이 일부가 사용하는 네라짐 물건인 장식 집게이겠거니 생각했던 것은, 사실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다. 그 안에 박힌 수정에서는 전력이 깜박였고, 전선 비슷한 돌출부가 있었다. 일종의 장치였다. 하지만 그녀는 차원장인이 아니기에 그 목적을 짐작할 수는 없었다.

대신 그것을 알 수 있는 차원장인을 알고 있었다.

그녀가 시신을 놓자 시신이 구르더니 다시 바닥에 널브러졌다. "내게 온 것은 잘한 일이다."

#

셀렌디스는 부패를 억제하기 위해 시신을 정지장에 넣고, 카락스가 알데라에 직접 지은 연구실로 가져갔다. 그곳에서는 이미, 델람의 수장에 걸맞은 존재감으로 공간을 압도하는 아르타니스가 차원장인과 함께 기다리고 있었다. 셀렌디스는 그가 이것을 직접 보는 것이 최선이라 판단했던 것이다. 탈란다르가 함께 있는 것은 조금 의외였다. 그가 두 열의 콘솔 사이로 비집고 들어와서 정지장이 놓인 탁자를 볼 수 있도록, 정화자의 로봇 기체는 접혀 있었다. 카락스의 콘솔에서 나는 빛이 그의 머리와 어깨에서 곡면을 이루는 금속판 위에 반사되었다.

"탈란다르가 마침 와 있던 참이었습니다." 카락스가 설명했다. 그는 그중 키가 제일 작았고, 눈은 그가 늘 품고 있는 호기심의 각도로 기울어져 있었다. 그가 가만히 있을 때에도, 그가 신경삭이 잘린 자리에 부착한 손이 달린 로봇 촉수 3개는 끊임없이 움직였다. "그가 있어서 나쁠 것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의 통찰력을 믿는다." 아르타니스가 말했다. 그의 어조에는 짙은 신뢰와

확신이 어려 있었다.

"큰 비밀도 아닙니다." 셀렌디스가 말했다.

카락스는 시신을 보고 놀란 숨을 들이켰다. 아르타니스가 그를 포함하여 모든 프로토스에게 기사 작위를 내리긴 했지만, 그중에 가장 죽음에 경험이 없는 것이

카락스였다.

"하지만 떠벌릴 일도 아니군." 아르타니스가 시신을 바라보며 말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셀렌디스는 자신이 관찰했던 내용을 설명했다. 장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카락스는 정신이 번쩍 드는 모양이었다. 그의 로봇 손들이 조심스레 시신을 뒤집어 장치를 꺼내서는 닦기 시작했다.

셀렌디스는 말을 이었다. "알데라로 돌아오기 전에, 그 마을에 살던 칼라이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죽은 자의 이름은 에라니스였고, 칼라이 계급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가족도 친구도 없었으며, 혈족과도 가까이 지내지 않았다더군요. 홀로 살다가 홀로 죽은 겁니다. 그가 숨을 거둔 것에... 놀란 이도 슬퍼하는 이도 없는 듯했습니다." 마을의 무기력한 프로토스들과 나눈 일방적인 대화에서, 그녀는 그 부분에서 가장 답답한 심정이 들었다.

"심란한 모양이군, 셀렌디스." 아르타니스가 말했다.

"아르타니스 님은 안 그렇습니까? 저는 심란한 게 아니라 화가 납니다. 우리는 이미 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한 걸까요? 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걸까요?"

"좋은 질문이군. 이자가 그리도 경멸당했던 것인가?"

"아뇨. 그런 건 아닙니다. 그들은 마치 햇볕에 너무 오래 있어서 움직이기가 싫은 듯했달까요." 그녀는 신중 약물이라도 나온 것이 아닐까 의심하기 시작했지만, 이상한 냄새를 풍기는 자는 없었다. "한마디로 그들은 프로토스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침묵 속에서 꿈지럭거리던 탈란다르가 입을 열었다. "나는 깨어났을 때 길을 잃은 기분이었네. 내게 위안을 줄 진짜 칼라가 없었지." 그가 말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무엇인지 알 수 없었고 나의 목적은 불분명했네. 그때처럼 고독했던 적은 전무후무하네. "나의 옛 친구와," 그는 고개를 아르타니스 쪽으로 살짝 기울이고 말을 이었다. "새 친구가," 이번에는 카락스 쪽이었다. "내 생각을 바꾸어 주지 않았다면, 그 고독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타인의 존재에 대해서는 잊어버릴 수도 있었겠지."

셀렌디스는 자신의 신경삭을 파고들던 타는 듯한 고통을, 그리고 칼라와 단절된 후 느닷없이 찾아왔던 공허를 떠올렸다... 갑작스럽고, 돌이킬 수 없는 단절. 아몬의 바다 같은

증오와 분노 속에서 자신을 잃는 것보다는 나았지만, 그래도 전에 입었던 어느 상처보다도 아팠다. 아마 마음의 상처이기 때문이었으리라. 그 상처는 지금까지도 가끔 육신거렸다.

"우리 모두 똑같이... 부상을 입었지만, 우리 목적 없이 떠돌지는 않습니다." 그녀는 시신 쪽으로 손짓했다. "그런데 이걸요? 칼라가 없어서 생긴 일은 아닙니다."

"그것도 정황의 일부지." 탈란다르가 말했다.

"사인은 이겁니다." 카락스가 끼어들었다. 로봇 손 하나가 깨끗해진 장치를 들고 있었다. 마른 피를 닦아 내자, 연마하지 않은 은으로 만든 꺾데기 같아 보였다. 미묘하게 다른 색의 전선이 표면의 아래위로 엮여 있었다. 아직도 깜박이는 수정이 그 안에서 맥동했다.

"저건 뭐지?" 셀렌디스가 물었다.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카락스가 수정을 두드렸다. "첫 번째는, 이것이 공허 에너지를 통과시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왜 그 속도가 일정하지 않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손상되었을지도—"

"두 번째는?" 아르타니스가 물었다. 엄중한 상황에서도, 카락스를 대하는 그의 목소리에는 애정 어린 장난기가 묻어 있었다.

"두 번째는요, 네." 카락스가 바늘처럼 가느다란 돌출부가 보이도록 장치를 돌렸다.

"이것이 최소한 부분적으로 그의 끊긴 신경과 연동되어 있었습니다. 진짜 목적을
알아내려면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이것이 신경에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작동을
시작했다면, 그는 아마 어마어마한 고통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손톱으로 떼어 내려고 했군." 셸렌디스가 말했다. 일종의 영적인 상처가
자해를 부른 거라는 설명보다는 훨씬 직접적인 설명이었다. 하지만 가장 단순한 답이 맞는
일이 얼마나 있을까? 프로토스는 복잡하고 다면적인 존재였다. 아르타니스 아래에서
공부를 하고, 끊임없이 변하는 정쟁의 장에서 지도자 역할을 하고, 아이어를 잃은 후로
어마어마한 변화를 겪고 다시 아이어를 탈환해 낸 셸렌디스가 그것을 모를 수는 없을
터였다.

카락스가 장치에서 알아낸 정보를 주절거리며 더 늘어놓기 시작했을 때, 연구실
문이 열리면서 경비병 하나가 들어왔다. "죄송하지만 잠시 실례해야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무슨 일이지?" 아르타니스가 물었다.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경비병이 말했다. "현장이... 피투성이입니다."

테란이었다면 우연의 일치거나 불운이라며 넘겨 버릴 만한 일이었지만,
셸렌디스는 그 뒤에서 더욱 심각하고 더욱 우려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아르타니스도 똑같이 느꼈다고 확신했다. 그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지만, 그가 한 손을 들어 세웠다. "탈란다르, 그대가 조사해 주시오." 아르타니스가 말했다. "정황이 같은지 확인하고... 시신을 이곳으로 보내시오."

"기꺼이 하지." 탈란다르는 문 쪽으로 돌아서서 연구실의 탁 트인 공간으로 가서는, 기체를 완전히 펼쳤다.

"카락스, 이 장치를 계속 연구해라." 아르타니스가 말했다.

"알겠습니다."

"알아내는 사실이 있으면 셀렌디스에게 보고해라."

셀렌디스는 혼자 조사하고 싶었지만, 이것이 시간과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길임을 알았다. 특히 그녀에게는 아직 맡은 임무가 있었으므로. "이 일은 빨리 결론짓도록 하지요."

#

얼마 지나지 않아 카락스는 탈란다르가 정지장에 보관하여 보낸 두 번째 시신과 함께 있었다. 그와 함께 정화자가 알아낸 기본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다. 여성, 이름은 테룬, 기사단 계급 출신. 피부색으로 보면 베나티르 부족일 가능성이 커 보였다.

첫 시신보다 상태가 더 엉망이었고, 몸을 뒤덮은 피도 덜 말라서 끈적끈적했다.

덕분에 이번에는 신경삭의 잘린 부분에 끼워져 있던 장치를 닦기가 훨씬 편했다. 그래서 카락스는 그 장치에 집중했다. 피는 별문제가 아니었다. 물론 심정은 불편했지만, 시신이 심한 오작동을 일으켜 자폭해 버린 생물학적 기계라고 생각하면 편했다.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내면, 다시는 오작동이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을 터였다.

연구실에 정적이 흐르는 가운데, 그는 두 시신에서 나온 장치를 분해하기 시작했다. 기우는 오후의 햇빛은 통과시키고 소음과 먼지는 완전히 차단하는 문과 역장 덕분에, 알데라의 소란은 문 밖에서 그쳤다. 카락스가 중얼거리는 소리 외에는, 동력 핵과 콘솔이 웅웅거리는 소리, 공구를 들거나 작업을 잡아 주는 추가 로봇 손들이 뽁뽁거리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았다.

두 번째 장치는 겉보기에는 첫 번째 장치와 동일했다. 연마하지 않은 금속 외장, 카락스는 개인적으로 영성하다고 생각한 미분화 신경 인터페이스, 울퉁불퉁한 에너지 전송 매트릭스. 이것이 그 안의 공허 에너지가 일정하지 않은 이유이리라. 하지만 두 개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기 시작하자, 배선과 매트릭스, 아직 목적을 알아내지 못한 연산 모듈에 뚜렷한 차이가 있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이 장치들은 양산된 것이 아니라 손으로 만든 것이었다. 마치 한 차원장인이 설계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완벽하게 개념 증명을 하려고 여러 차례 시제품을 만든 것처럼.

카락스는 이 점이 특히 짚짚했다. 개념 증명은 프로토스의 신경에 설치해서가 아니라 시뮬레이터로 해야 하는 것이었다. 전투 중에는 동료들이 가끔 살아 있는 피험체를 대상으로 반복 실험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것은 압도적으로 필요할 때 쓰는 극단적인 수단이었던 것이다. 이제 극단적인 수단을 써야 했던 시기는 끝났다.

관찰 결과 진화의 흔적도 보였다. 두 번째 장치에는, 첫 번째 장치에서 명백하게 드러나는 결점이 없었다. 과부하가 걸려 있던 신경 접합부나 한때 온전했겠지만 휘어 버린 에너지 채널이 그랬다. 두 번째 장치에서도 오작동의 징후는 명백했지만, 달랐다. 이전의 실패 요인을 파악하여 수정하고, 새로운 실패 요인을 찾은 것이었다.

카락스가 장치를 모두 탁자 위에 내려놓고 콘솔로 가서 시뮬레이션을 시작했을 때, 방의 공기가 흔들렸다. 누가 있다. 연구실에 불일이 있는 자는 이렇게 조용하지 않다. 카락스가 아는 칼라이 중에도 이렇게 조용한 자는 없었다.

뒤돌아선 카락스의 눈에, 장치들 앞에 서서 손톱으로 하나를 가볍게 돌려 보고 있는 여자 네라짐이 들어왔다. 여자치고도 유난히 키가 작았고, 피부색은 밤처럼 어스름했다. 그녀는 그를 날카롭게 바라보는가 싶더니, 눈 깜짝하는 사이 그의 목덜미를 노리고 있었다. 여자의 녹색 눈이 불길을 뿜었다. "내가 찾던 도둑이 너였군. 위대하신 아르타니스의 그림자 속에 숨어 있을 줄이야."

카락스가 조심스레 두 손을 드는 동안에도, 그의 로봇 손 하나는 콘솔 아래에서 몰래 칼을 빼내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사이오닉 검을 충전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도둑이 아니다. 사체들은 보았겠지?" 여자가 꿈쩍도 하지 않는 것을 보니 그런 듯했다. "장치들은 거기서 나왔다. 나는 이 물건들의 기능을 파악하는 공무를 하느라 여기 있을 뿐이야. 저들 중 하나가 네가 말하는 도둑이 아닐까?"

그는 여자의 정신이 자신의 정신을 짓누르는 것을 느꼈다. 평가하고 있다. 마침내 여자는 한 걸음 물러서서 탁자로 돌아갔다. "이건 모조품이다." 여자가 장치 하나를 집어 들고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차 씩씩하고 역겹다는 듯한 투로 변했다. "아주 어설프게 만든 모조품이지. 너희 칼라이는 남의 것을 빼앗아서 어설프게 다시 만든 다음, 자기 것이라 주장하기를 좋아하니까."

"타인의 발명품을 빼앗는 일은 전혀 즐겁지 않아." 카락스가 반박했다.

"네 생각은 그럴지도 모르지." 네라짐이 말했다. "하지만 네 동료들 중에는 우리 작품에 황금기풍으로 도금하기 좋아하는 자들이 있어."

카락스는 언쟁을 벌이고 싶은 욕구를 애써 억눌렀다. *한 번에 하나씩만 하자.*

"이름이 뭐지?" 그가 물었다.

"네라스."

"난 카락스다. 당신은 차원장인인가?"

그녀는 장치를 내려놓고 재미있다는 듯이 카락스를 보았다. "꼭 *너희*의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면, 그 말이 나의 가문을 꽤 정확하게 묘사한다고 해야겠지. 이 도둑 때문에 해를 입은 이들이지."

이 말과 함께 대화의 초점이 확실해졌다. "우리가 손을 잡으면 각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네가 나를 어떻게 돕겠다는 거지?" 그녀는 조롱하는 투였다.

"내게는 신관 아르타니스께서 받은 자원이 있다. 지금 내가 극복해야 하는 가장 큰 장벽은 이 장치들의 목적을 알아내는 것이다. 그리고 나면, 장치들이 어떻게 변형되었는지 파악하여 칼라이 차원장인 중에 그런 일을 할 만한 자들을 추릴 수 있을 것이다. 내게 필요한 정보를 주면, 내가 셸렌디스 집행관께 용의자 명단을 제출하면서 당신에게도 넘겨주지."

네라스는 아주 길게 느껴지는 시간 동안 그를 수상쩍다는 듯이 바라보았다. "여러 방향에서 접근해서 해로울 건 없겠지. 이것들은 공허와의 연결을 보조하고... 공허 에너지를 억제하여 착용자가 공허 충격으로 무력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다." 네라스는 탁자 위에 놓인 장치 하나를 무심히 돌렸다. "셸렌디스는 그들을 먼저 찾기를 바라야 할

거야."

#

죽은 기사 시신을 카락스에게 보내고, 탈란다르는 여자의 집을 둘러보았다. 그가 예전의 자아인 피닉스의 기억 안에서 "집"이라 생각했던 곳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깨끗하게 손질되어 전장에 나갈 준비가 된 방어구가 거치대에 걸려 있고, 무기는 벽에 명예롭게 전시되어 있었다. (그의 개인적인 취향에는 맞지 않는) 미술품과 책이 몇 점 있고, 휴식을 취할 때 안락감을 주는 최소한의 가구가 갖추어져 있었다. 셀렌디스가 첫 사망자에 대해 말했던 것처럼 목적이 없어 보이지는 않았다. 오히려 다시는 오지 않을 전투를 기다리고 있는 자의 거처 같았다.

탈란다르는 물품 목록을 정리하면서 모든 정화자를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통해 말을 했다. 칼라보다는 훨씬 못했지만, 지금 칼라이가 가진 것보다는 나았다. 그가 삶에서 가장 큰 바탕으로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 정한 목적과 스스로 선택한 이름이었지만, 나머지 정화자들과의 연결을 통해서도 다시 하나의 종족으로 감싸이는 듯한 감각을 느낄 수 있었다. 감정의 파도가 없어도, 연결 그 자체가 연고와도 같았다. 속삭이듯 질문해도 자신과 비슷한 이들이 듣는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고독이 치유되었다.

지금 그가 던진 질문은, 이상하게 행동하는 칼라이를 보았거나 그의 설명과

일치하는 장치를 본 정화자가 있느냐는 것이었다. 하나같이 장치를 본 적이 없다는 대답이 순식간에 돌아왔다. 그러나 프로토스의 행동에 대한 질문에는 정화자들은 전혀 대답하지 않았다.

우리는 남들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클로라리온이 요약하듯 말하자, 다들 동의했다.

우리를 다시는 노예로 삼지 않겠다는 아르타니스의 말은 믿지만, 우리의 사회 사이에는 교집합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원하는 바가 다르지요. 누군가 재건 노력과 관련하여 우리의 도움을 청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우리가 마주쳐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가끔씩 그들을 관찰하기도 합니다. 모조가 말했다. 하지만 그들이 우리에게 감시당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행동을 바꾸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에 대한 정보는 드릴 수가 없군요.

우리는 모두 프로토스다. 탈란다르가 강하게 말했다.

칼라이와 네라짐도 그렇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모두 한마음인 것은 아닙니다. 클로라리온이 말했다. 그의 발언에 악의는 없었다. 건조한 사실만 있을 뿐.

탈란다르는 네트워크에 접속하지 않고 답답한 한숨을 내쉬었다. 이런 상황에 모두를 이끌려면 술선수범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는 나중에 참고하기 위해 죽은 프로토스의 집을 관찰하여 입수한 정보와 스캔 기록을 카락스의 단말기에 모두 저장하고,

거리로 나갔다.

그가 밖에 나가자마자 행인의 흐름이 바뀌었다. 존경의 의미로 거리를 두는 것은 확실했다. 그는 자신의 금속 몸체가 한때 가졌던 살로 이루어진 몸보다 훨씬 공간을 많이 차지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다리가 두 개가 아닌 네 개라는 것은 시작일 뿐이었다.

하지만 나머지 프로토스들이 그를 바라보는 눈빛은... 공간의 문제만은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그것은 그의 존재를 인지했음을 의미하는 잠깐 스쳐가는 시선이 아니라, 호기심 어린 눈길에서 슬픈 눈길, 생소하지만 커다란 기계를 바라볼 때 전사라면 누구나 던질 법한 경계하는 눈길까지, 다양했다. 그에게는 거리의 행인들이 익숙하고 일상적이었지만, 자신의 기분이 어찌 됐든 그는 그들에게 신기한 존재였던 것이다. 그것은 미묘하면서도 아픈 소외였다. 그리고 정화자들이 폐쇄적인 생활을 택한 또 하나의 이유일지도 몰랐다. 전에는 이런 현실을 알지 못했다. 아마 정화자들 아니면 델람과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기 때문이었으리라. 델람은 모두 *아둔의 창*에서 함께했던 시간 덕에 그를 잘 알았던 것이다.

탈란다르는 근심을 잠시 접어 두었다. 아직 해야 하는 일이 있었다. 테룬은 그나마 에라니스보다는 생의 흔적을 많이 남긴 터라, 탈란다르가 찾아볼 만한 이름들이 있었다. 그는 우선 그녀의 아버지를 찾아 도시 반대쪽으로 차원이동했다. 칼라의 시대가 가면서 가족 간의 유대가 강해졌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탈란다르가 찾은 프로토스 노인은

저무는 햇빛을 받으며 벤치에 앉아서, 눈을 가늘게 뜨고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의 딸 테룬에 대한 슬픈 소식을 전하러 왔습니다." 탈란다르가 말했다.

"딸이—" 그는 그 순간, 선조들이 있는 칼라로 돌아갔다는 일상적인 말이 이제 사실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는 찰나의 순간 머뭇거리고 말을 이었다. "별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최근에 딸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정화자가 왜 그걸 알고 있지?"

"테룬의 사망을 조사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하. 설령 내가 당신의 의도를 믿는다 하더라도, 답은 줄 수 없다. 우리는 아이어에 돌아온 후로 만난 적이 없으니까." 프로토스 노인은 두말없이 일어서서 가 버렸다.

최초의 정화자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존재했을 만큼 나이가 많지는 않은데.

탈란다르가 생각했다. 사실 그런 자는 없었다. 하지만 틀림없이 이야기는 전해 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저렇게 냉랭한 것이리라. 그는 명단의 다음 이름으로 주의를 돌렸다.

테룬과 함께 광전사로 복무했던 기사 이름이었다.

이 프로토스는 한 보관소 건물의 근처에 있었다. 이번 프로토스는 탈란다르의 존재를 신기해하는 듯했다. "당신들이 말을 하는 줄은 몰랐어요!"가 그의 첫 소감이었다.

탈란다르는 흠칫 놀라 말을 멈추었다. "뭐라고?"

"정화자가 우리가 가진 최고의 전쟁 병기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아르타니스 님이 아이어를 탈환한 후에 당신들을 다시 정지장으로 돌려보낸 줄 알았습니다."

"아닌데?" 탈란다르는 얼른 정신을 수습했다. "내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정화자는 모사 대상인 프로토스의 지식을 모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프로토스의 묘한 열의가 왠지 아까 겪었던 적대적인 태도보다 더 뜨악했다. "내 말을 들어라." 탈란다르가 에너지 포를 탑재한 팔을 들며 명령했다. 순전히 강조를 위해서였다.

"물론이죠. 죄송합니다." 프로토스는 움찔했다. 아주 미세하게.

"나는—"

"그렇다면 정화자가 첩보 병력이 되어 드론을 통해 우리를 감시한다는 것이 사실인가 보죠?"

탈란다르는 그의 질문공세에서는 가까스로 벗어났지만, 테룬에 대해서는 의미 있는 대답을 듣지 못했다. 최근 알데라를 돌아다니는 꺼림칙한 음모 이론을 알게 되었을 뿐. 허구의 이야기로 정화자들의 자가 격리가 남긴 공허를 채우는 편이 쉬울지도 몰랐다.

탈란다르는 명단에 있는 사람들을 차례차례 만났지만, 매번 결과는 좌절스러울 따름이었다. 그를 뻘히 바라보느라 정신이 팔려서, 도움이 되는 답을 주지 못하는 이들도

있었다. 적대적인 이들도 있었다. 광적인 호기심을 표출하는 이들도 있었다. 이런 자들이 가장 마뜩잖았고, 시간도 가장 많이 낭비했다. 탈란다르가 테룬의 집 인근의 문을 마구잡이로 두드리고 다닐까 하던 차에, 명단 끝에서 두 번째에 이르러 마침내 유용한 정보를 얻었다.

마이타나는 본래 기사단 계급이었다. 외모만으로도 그것은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허름한 로브를 입고 있었으며 병들어 보였다. 피부는 창백하고 얼룩덜룩했으며, 너무나 얇았다. 저물어 가는 저녁 햇빛에서도 분명히 보였다. 그사이 여러 차례 연습을 거친 샘인 탈란다르가 능숙하게 테룬의 사망 소식을 전하는 동안, 그녀는 끈기 있게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탈란다르는 그 소식을 어찌나 많이 전했는지, 이제 자신에게는 별다른 의미 없이 느껴지는 것이 끔찍할 따름이었다.

"테룬이 어디로 갔든, 이제 자기 기량에 맞는 전투를 치를 수 있겠군요."

"테룬이 평소 목적이 없다고 생각했습니까?" 그 역시도 자기만의 사명이 없을 때 무기력을 느낀 적이 있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찾았을 때, 활력이 솟구쳤었다.

"아직 싸워야 하는 전투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한동안 전투 소집이 없었지요. 우리는 돌을 깔거나 대장간에서 일하는 칼라이 계급이 아닙니다. 우린 명예와 영광을 위해, 집행자들을 따라 전투에 참전했지요."

"명예란 스스로의 진실입니다." 탈란다르가 말했다. 이것은 그들이 아이어를 탈환했던 시절 생각 끝에 내린 또 하나의 결론이었다. "전투만이 유일한 업적은 아니지요."

"정화자가 무엇을 안단 말입니까?"

"당신 생각보다 많이 압니다. 우리 역시, 모든 프로토스가 그렇듯이 전사입니다. 재건하고, 보호하고, 성장하는 것을 새로 목표로 삼았죠. 당신들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말한 내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이타나는 조금 부끄러운 모양이었다.

"조그만 승리도 승리지요." 탈란다르가 말했다.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도 진보입니다. 또한 돌 위에 돌을 하나씩 쌓아 나가면, 벽이 점점 튼튼해져 안에 있는 이들을 지키는 법이지요." 카락스를 관찰하며 배운 것이었다. "테룬도 당신처럼 생각했나요?"

"맞습니다. 그녀는 목적을 찾아 나섰고, 저는... 목적의 부재 속에서 뒹굴었다는 차이가 있지만요."

"테룬은 찾던 것을 결국 찾았습니까?"

"새로운 사원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모두 되찾아 줄 사원이라고 했지요. 제게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갔습니까?" 지금까지 들은 정보 중에 가장 유용한 정보였다.

"한 번은 갔지만,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전 그곳이 마음에 들지 않아 테룬에게도 그렇게 말했지요. 그 후로는 제게 다시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곳이 어디인지 알려 주십시오."

탈란다르는 마이타나를 따라 알데라의 북쪽 외곽으로 갔다. 그곳에는 이미 그림자가 길게 드리운 지 오래였다. 그곳은 첫 시신이 발견되었던 곳만큼 허름하진 않았지만, 마치 도시의 해골 같았다. 살점이 자라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해골. 마이타나는 그를 버려진 건물로 안내했다. 그의 머릿속에 있던 사원의 이미지와 일치하는 부분이 전혀 없었다. 그보다는 기계 창고에 가까워 보였고, 그의 스캐너가 기름과 연료 증기의 존재를 확인해 주었다. 내부는 철저히 비어 있었다. "테룬이 당신을 데려왔을 때, 여기 또 누가 있었습니까?"

"네. 칼라이 계급의 여자가 있었습니다. 키가 굉장히 컸죠. 그건 기억납니다. 그리고 피부색이 아주 밝았습니다."

탈란다르는 그 정보를 카락스에게 보내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마주하게 될 전투에 대해 더 이야기하고 싶다면, 언제든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누시지요."

#

다행히도 네라스는 카락스에게 원 장치의 사양을 자세히 알려 주고 나서, 자기 나름대로 조사를 계속하기 위해 떠났다. 그에게 모조품을 만들지 않겠다는 모욕적인 약속을 받아 낸 후였다. 카락스는 또한, 네라스가 새로 알아내는 정보를 알려 주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은 것을 깨닫고 짜증이 났다. 하지만 칼라이에 대한 불만을 온몸으로 표출하면서 공구를 가지고 놀거나 단말기를 눌러 대는 여자가 없으니, 당면한 일에 집중하기는 쉬웠다.

그는 로봇 손 하나로 새로운 장치를 이리저리 돌리면서, 나머지 손으로는 단말기에 나온 결과를 넘겨 보았다. 이것은 공허 에너지를 전달하는 장치였다. 그러나 한쪽에는 정화자의 기술과 흡사한 추가 회로가 있었고, 한쪽에는 사이오닉 에너지를 공허 에너지로 변환하려는 시도처럼 보이는 개조 부품이 있었다. 부품은 부분적으로 녹아 내린 데다, 온전히 작동하지 않았다. 무기를 만들려고 한 것일까? 그렇다면 왜 이것이 신경삭 가닥에 연결되어 있었던 걸까...?

"아." 그가 웅웅거리는 기계음을 제외하고는 고요한 연구실에서 말했다. 그 장치의 미친 듯한, 불가능한 천재성에 대한 경악과 혐오, 감탄을 함께 담고 있는 감탄사였다. 칼라가 사라지고 나서, 누군가 사이오닉 링크를 새로 구축하여 공허에서 나온 에너지와 연결하려 한 것인가? 그는 급히 이런 가정을 반영하여 새로운 시뮬레이션을 구성했다.

"카락스." 탈란다르가 불렀다. 아직 도시에 있는 것인지, 소리가 멀게 들렸다.

"네?" 카락스는 창 밖을 힐끗 보았다. 일에 매진하다 보니 오후는 완전히 저문 후였다.

"심란한 목소리군."

"심란합니다. 결론을 내리는 대로 말씀드리지요. 무엇을 알아내셨습니까?"

"많이 알아냈다. 당장 쓸모가 있는 것은 별로 없지만서도." 탈란다르는 생각에 잠긴 목소리였다. "혹시 유난히 키가 크며 피부색이 밝은 여자 차원장인을 알고 있나?"

카락스는 웃음을 터뜨렸다. "신체 특징 묘사는 생각만큼 유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다른 차원장인과 과학자들을 아는 건, 주로 연구 논문을 통해서거든요." 이 대답을 들은 탈란다르가 연구실 밖에서 시간을 보내야 하는 프로토스에 대해 불평하는 동안, 카락스는 전에 만난 사람 중에 인상착의가 그 설명에 일치하는 이가 있다는 것을 떠올렸다. 그는 그녀의 이름, '란타리스'로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했다. 그녀는 알데라에 살고 있었다.

"아는 이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에?"

카락스는 잠시 주저했다. 셀렌디스와 네라스에게 연락을 해야 할까? 하지만 확신이 들지 않았다. 통계적으로는 키가 크고 피부색이 밝은 프로토스는 무수할 것이었다. 그리고

그중 일부는 칼라이 계급이었을 테고, 또 그중 일부는 기술에도 조예가 있을 터였다. 우선 이 무모한 추측이 사실인지 확인해야 했다. 그는 탈란다르에게 그녀의 연구실 위치를 알려 주고, 이어 말했다. "제가 그 앞의 거리로 갈 테니 거기서 뵙지요."

카락스가 비교적 짧은 거리를 차원이동했을 때 탈란다르는 이미 그곳에 도착해 있었다. 카락스는 연구실의 보안을 점검하느라 조금 늦었지만, 그는 바로 출발했으리라. 육중한 정화자는 눈에 띄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하지만... 전혀 효과가 없었다. 그들을 창에서 지켜보거나 호기심 어린 눈길로 바라보는 프로토스가 많았다. 이 지역은 평범하고 장인이 많이 사는 동네였다. 아르타니스가 신분 제도를 철폐하긴 했지만, 오래 산 사람들의 습관은 오랫동안 변하지 않았다.

"아무도 없는 것 같군." 탈란다르가 말했다. "에너지 방출이 보이지 않아."

"오늘 집을 비운 건지도 모릅니다." 카락스가 말했다.

"그러면 알아서 들어가야겠군." 전함의 장갑도 정화자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았다. 문은 맥없이 열렸고... 안은 혼돈의 도가니였다.

시신이 한 구 더 나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잠시 카락스를 짓눌렀지만, 그는 금세 피나 죽음의 냄새는 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침착을 찾은 그는 흩어져 있는 금속과 회로 부품, 무너진 서류 더미를 관찰하면서, 꼭 있어야 하는데 없는 것을 찾아냈다.

란타리스의 단말기와 공구가 하나도 없었다.

"공격당한 걸까?" 탈란다르가 물었다.

"아닙니다." 패턴은 명백했다. "급하게 짐을 싸서 도망친 겁니다."

"우리에게서?"

"그것도 좋은 작업가설이군요." 카락스는 로봇 손으로 서류들을 분류하며 빠르게 읽기 시작했다. 도면이 간혹 섞여 있었다. 장치 자체와 관련이 있는 도면은 아니었지만, 그녀가 손을 댔을 것이라는 사실은 짐작하고 남을 정도였다. 그러다가 그는, 미친 듯이 휘갈겨 쓴 검은 칼라니어 문자로 덮인 페이지들이 흩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내용의 대부분은 앞뒤가 맞지 않는 헛소리였지만, 여러 차례 반복되는 한 문구가 그의 눈을 사로잡았다. *"아르타니스는 우리를 저버렸다. 그는 우리를 살해했다. 그는 우리의 영혼을 죽였다. 나는 새로운 칼라를 찾을 것이다. 나는 우리를 구할 것이다."*

그는 기분이 더러워지고 찌뻘해져 종이를 던져 버렸다. "제 생각이 맞았습니다... 그게 장치의 목적이 맞았어요. 결손이 생긴 칼라를 신기술로 재건하는 것 말입니다. 정말 끔찍한 발상이에요! 우리가 연결을 끊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하는 짓은... 그냥 두면 희생자들이 미쳐 버릴 겁니다. 그대의 생각이 맞았습니다."

"우리 둘 다 나름대로는 맞았다." 탈란다르가 말했다.

지금은 그 이야기를 나눌 때가 아니라고 카락스는 판단했다. "저는 셀렌디스 님과 네라스에게 이 정보를 전하겠습니다."

"누구?"

카락스가 이마를 문질렀다. "왠지 뭔가 깜박한 것 같더라니. 곧 설명해 드리지요."

#

셀렌디스는 와 달라는 카락스의 전언을 받고 안도했다. 일상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데 정신력을 상당 부분 집중해야 했지만, 조사와 사망 사건에 대한 생각이 그녀의 의식 한편에 자리 잡고 사라지지 않았던 것이다. 업무에 눈에 띄게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었지만, 성미가 급해지고 인내심이 없어질 정도는 됐다.

"하지만 이 란타리스라는 자가 어디 갔는지는 모른다는 것인가." 셀렌디스가 광기가 엿보이는 그 글을 살피며 재차 물었다. 그들이 아직 칼라에 연결되어 있었다면, 란타리스를 찾는 일이 시시하지는 않아도 꽤 간단했을 것이다. 이제 발각되고 싶지 않은 자들이 숨고 거짓말을 하기가 너무 쉬워졌다. *그 암흑 기사처럼 말이지.* 셀렌디스는 어쩔 수 없이 그 생각을 떠올렸다. 그들이 펴야만 하는 사회의 주름이었다.

새로운 사회 질서를 구축하는 과정이 얼마나 지난하고 느린지, 전에는 것처럼 절감해 본 적이 없었다.

"모릅니다, 집행관님." 카락스가 말했다.

"하지만 그 여자가 어떤 사회적 흔적을 남길지에 대해서는 짚이는 데가 있네."

탈란다르가 말했다. "수색의 범위를 빨리 넓혀야 하네."

셀렌디스는 아르타니스를 *배신자*, *파괴자*라고 부르는 비뚤어진 칼라니어 글을 곱씹어 보다가 종이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그리고 그 잔여물이 남아 있기라도 한 듯 손톱을 닦았다. "그렇다면 그리하겠습니다. 제가—"

"정체불명의 아름다운 사냥꾼이 전하는 소식을 들어 주겠어?" 새로운 목소리가 물었다. 버려진 연구실 속의 공기가 흔들렸다.

셀렌디스가 돌아서자, 전에 만난 적이 없는 암흑 기사가 문간에 서 있었다. 여자는 키와 체격이 작았으며, 망토를 두르고 거의 검은색에 가까운 진파란색의 복면을 쓰고 있었다. 별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의 하늘에 가까운 색이었다. "넌 누구냐?" 셀렌디스가 물었다.

"아, 당신들의 꼬마 차원장인이 경고해 주지 않았나 보지?"

카락스에게 아무 말을 듣지 못한 셀렌디스는 둘이 있을 때 따끔하게 말을 해 줘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렇다." 셀렌디스는 암흑 기사 특유의 오만한 태도가 늘 신경에 거슬렸는데, 이 여자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제 말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카락스가 속절없이 양손을 펴고 항의했다.

암흑 기사는 비꼬는 태도로 절을 해 보였다. "나는 네라스다. 우리도 같은 문제를... 다른 측면에서 조사하는 중이지. 이게 당신들에게는 살인이겠지만, 내게는 절도거든."

셀렌디스의 날카로운 눈길에 카락스는 어깨를 움츠렸다. "설명해라." 카락스가 설명을 하고 네라스가 지루하게 토를 단 후, 셀렌디스가 말했다. "그래서 무슨 소식을 가져왔다는 것이냐?"

"나는 오늘 조사를 하다가, 한 남자 칼라이가 '새로운 사원'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 당신들이 애쓰는 게 장해서 정보를 공유할까 했지."

그게 아니라 우리의 대화를 엿듣기 전까지는 그 의미를 몰랐겠지. 셀렌디스는 생각했다. "원하는 게 무엇이냐?"

"하나의 종족, 하나의 목적. 무슨 말인지 알지?" 네라스가 놀리듯이 물었다.

셀렌디스는 그저 그녀를 빤히 바라볼 뿐이었다.

"나는 이 도둑질이 끝나기를 바랄 뿐이야."

셀렌디스는 입씨름을 할 기분이 아니었다. "우리를 그 칼라이에게 데려가 주면 우리가 그자를 심문하지."

"아이어 프로토스들은 섬세하지 못하다니까." 네라스가 말했다. "그자가 진심으로

그 신흥 종교를 믿는다면, 적대적인 심문에 굴복하기보다는 순교를 택하지 않겠어?"

"신체를 개조할 만큼은 신앙이 강하지." 탈란다르가 한마디 했다.

"그럼 어찌자는 것이냐?" 셀렌디스가 물었다.

"그자를 감시하면서 어디로 가는지 봐야겠지."

#

탈란다르는 처음에 네라스와 함께 그 남자 프로토스를 감시하겠다고 나섰지만, 셀렌디스는 강한 어조로 자기가 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럴 때 토를 달면 안 된다는 것을 탈란다르도 알고 있었다. 셀렌디스는 암흑 기사도, 그녀가 주장하는 목적도 믿지 않았고, 매사 조금씩 재미있어 하는 듯한 네라스의 태도에도 짜증을 느끼고 있었다. 둘은 함께 가게의 지붕에 앉아서 아래의 거리를 지켜보았다. 그들이 쫓는 남자가 인근의 주택으로 들어가서, 벌써 몇 시간째 나오지 않고 있었다. 그자가 잠을 자는 중일 공산이 커 보였다. 이러다가는 밤새 이곳에 있어야 할 것이었다.

"차라리 정화자와 있는 편이 훨씬 즐거웠겠는데." 네라스는 또 거리를 지나가던 행인에 대해 촌평을 한 후 말했고, 셀렌디스는 들었다는 시늉만 했다.

"카락스의 연구실로 가서 그와 함께 기다려도 난 상관없다." 셀렌디스가 말했다.

"그자는 유머 감각이 있는 것 같더라고." 네라스는 셀렌디스가 애초에 말을 하지

않은 듯이 말을 이었다.

"넌 말이 너무 많아." 최악인 건, 네라스의 촌평 중에 조금은 기발한 것도 있었다는 사실이였다.

"당신이 잘 들어 주면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겠지."

셀렌디스는 네라스를 쏘아보았다.

암흑 기사는 짐짓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양손을 펼쳐 보이고 계속 말했다. "난 당신들을 도우러 온 거야, 셀렌디스. 그럼으로써 내 종족을 돕고 말이야."

셀렌디스가 코웃음을 쳤다. "후자에 대해서는 일말의 의심도 없다."

"심하게 적대적이네." 네라스가 말했다. "상처 입었다고."

"너희 종족이라." 셀렌디스가 네라스처럼 조롱하는 어조로 물었다. "우리 종족은 어찌고?" 그것은 부당하기도 하고 완전히 정직하지도 않은 말이었지만, 그녀의 좌절감과 걱정이 말을 뱉고 말았다. 셀렌디스는 자신이 아직도 내심 프로토스를 칼라이와 네라짐으로 나누고 있다는 것을 아르타니스가 알면 고통스러워 하리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셀렌디스가 보기에는, 네라짐은 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노력을 별로 하지 않았다.

"너희 종족이 뭐? 칼라이가 살아남으려면 네라짐을 제거해야 한다는 태도에

우리란 없어.”

"과장하긴." 셀렌디스가 건조하게 말했다. "너희를 제거하려는 자는 없다."

네라스는 웃음을 터뜨렸다. "남들을 자신의 모습으로 다시 만들려고 해서는 합일을 이룰 수 없지." 셀렌디스가 거부감과 분노를 표출하며 반박하려 하는 순간, 네라스가 한 손으로 자르는 동작을 해 보였다. 그녀의 자세가 순식간에 날선 경계의 자세로 바뀌었다. "사냥감이 움직인다. 토론은 나중에 마무리하지." 아래의 거리에서 그 남자 칼라이가 아까 왔던 방향과는 반대로 가고 있었다.

"꼭 그러지." 셀렌디스는 씹어 뱉듯 말했다.

"이제 어디로 가려나." 네라스는 멀리서 그의 뒤를 밟으며 말했다.

"늦은 시간이니, 아마 집으로 가는 거겠지."

"방향이 달라." 네라스가 말했다. "내 생각엔 비밀 회합에 가서 뭔가 충격적인 암시장 물건을 밀매하려는 것 같은데."

셀렌디스는 자기도 모르게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자의 명예를 평가절하하는군."

"나는 당신보다 저자를 오래 감시했어. 내가 그를 어디서 발견했는지 직접 봤어야 한다고."

남자 칼라이는 정말 어두컴컴한 뒷골목으로 접어들었다. 그들이 안전한 거리에서 지켜보는 동안, 문이 열려 그를 맞이했다. 키가 크고 유난히 피부색이 밝은 여자 프로토스가 그를 안으로 들였다. "탈란다르와 카락스를 부르겠다." 셀렌디스가 말했다.

"콩고물이라도 건지려면 빨리 오는 것이 좋다고 전해." 네라스가 차원검을 꺼내며 말했다.

"네라스—!" 셀렌디스가 입을 열었지만 암흑 기사는 이미 사라진 후였다.

셀렌디스가 탈란다르와 카락스를 부르는 잠깐의 시간 동안, 네라스는 이미 건물 안으로 침투해 있었다. 그사이에 란타리스가 일종의 보안 시스템을 가동했는지, 셀렌디스가 문 앞에 섰을 때는 문이 꿈쩍도 하지 않았다. 사이오닉 검으로 베어 봐도, 에너지가 역장 앞에서 피식거리며 사라져 버릴 뿐이었다. 셀렌디스가 욕설을 뱉고 들어갈 방법을 찾고 있을 때, 탈란다르와 카락스가 도착했다.

"문이요!" 그녀가 소리쳤다.

탈란다르가 몇 걸음 물러서서 돌진할 공간을 마련했다. 그가 문을 들이받는 순간 그에게서 에너지가 솟구쳤고, 에너지가 눈부시게 밝게 번쩍이는 것으로 보아 역장에 과부하가 걸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포자기한 듯 뼈격하는 금속음과 함께, 문이 안으로 휘더니 그대로 넘어갔다.

셀렌디스는 문이 완전히 바닥에 닿기도 전에, 집채만 한 정화자의 옆으로 돌아 안으로 들어갔다. 조그마한 전실에는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었다. 아래에서 네라스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다시는 우리에게서 흠치지 못할 것이다!"

또 하나의 목소리가 고함으로 대답했다. "이것은 신성한 목적이다!"

셀렌디스는 카락스와 탈란다르를 등 뒤에 두고 계단을 뛰어 내려갔다. 그녀의 사이오닉 검이 다시 밝게 타올랐다. 계단 아래에서는 네라스와 란타리스가 있었다. 란타리스는 훌쩍 키가 큰데도 구석으로 몰린 채 작업용 단말에 등을 대고 있었다. 방의 벽에는 회로와 수정들이 복잡하게 얽혀 망을 이루고 있었다. 그들의 뒤로, 아래층의 안쪽 방에는 탁자가 하나 있고 그들이 뒤를 밟은 남자 칼라이가 그 위에 누워 있었다. 그는 의식이 없었고, 기묘하게 생긴 장치가 신경삭에 반쯤 박힌 상태였다.

"네라스, 그러지—" 셀렌디스가 입을 열었다.

그때 란타리스가 단말 위로 손을 뻗었다. 일순 방 전체에 에너지 파동이 일었다. 네라스는 목이 졸린 듯 날카로운 비명을 뱉고 바닥에 쓰러졌다. 셀렌디스는 그 에너지가 머릿속에서 텔레파시가 되어 포효하며 생각들을 모조리 밀어내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무언가가, 발톱을 휘두르며 목적을 찾으려 했다. 그 느낌은 아몬과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꿈쩍하리만치 비슷했다. 그녀는 자신의 비명을 어렴풋이 의식하며 비틀거리다가 바닥에

손발을 대고 털썩 쓰러졌다.

주위의 공기가 걸쭉한 액체처럼 느껴지고, 시간 감각이 불규칙하게 울렁거렸다.

그녀의 눈에, 란타리스가 사이오닉 검을 휘두르며 바닥에 엎드린 네라스에게 달려드는 광경이 들어왔다. 셀렌디스는 문득 터무니없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의 토론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그녀는 의지력을 쥐어짜서 근육을 움직여, 네라스 위로 몸을 날리면서 사이오닉 검을 들어 상대를 막았다.

그 후에는 그저 버티는 수밖에 없었다.

#

탈란다르는 에너지 폭증을 감지했다. *공허 에너지*라고 시스템이 경고했지만, 버퍼 오버런이 발생할 정도는 아니었다. 주위에는 네라스와 셀렌디스, 카락스가 쓰러져 있었다. 셀렌디스는 눈에서 에너지를 뿜으며 엎드린 암흑 기사 위로 몸을 던지면서, 가까스로 공격을 막을 만큼 검을 들었다. 검과 검이 만나며 에너지가 섬광을 뿜는 순간, 탈란다르가 육중한 팔을 휘둘러 란타리스를 후려쳤다. 그녀는 방 반대편으로 날아가 단말에서 멀어졌다. "카락스, 단말을 보라." 탈란다르가 명령했다.

란타리스는 말없이 으르렁거리며 일어섰다. 기사는 아니지만 전투 훈련을 받은 것이 분명했다. 탈란다르는 거리를 재빨리 좁히면서, 시스템 전체에 탁탁 튀는 에너지를

순환시켰다. 이에 그녀가 올린 보호막이 산산조각이 났다. 란타리스는 그의 한쪽 주먹을 검으로 막았다. 사이오닉 에너지는 그의 장갑에 부딪히는 순간 한 줄기 연기가 되어 사라졌다. 그의 반대쪽 주먹이 그녀의 옆머리에 꽂혔고, 그녀는 정신이 아득해졌다. 여자가 비틀거리는 동안 그는 다시 짧게 잘린 신경삭 끝부분에 직격타를 날렸다. 란타리스는 결국 털썩 쓰러졌다. 탈란다르는 만전을 기하기 위해 탐사정을 불러 정지장을 만들게 한 후, 축 늘어진 란타리스를 그 안으로 옥여넣었다.

탈란다르가 돌아보니 카락스는 실제 손보다 안정적인 로봇 손으로 단말에 뭔가 입력하고 있었다. 그가 순간 주먹으로 단말을 후려쳤고, 그런 후 그와 셀렌디스는 모두 안도한 듯 축 늘어졌다. "이건... 추가적인 조사를 위해 압수해야겠습니다." 카락스가 말했다.

"어떻게 된 거지?" 탈란다르가 물었다.

"저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주 고통스러웠지요." 카락스가 말했다.

"그리고 그대가 저를 보호해 주신 것 같군요. 감사합니다."

"그건 꼭— 그 여자가 제 정신을 손톱으로 거머쥔 느낌이었습니다. 이것이 테룬과 에라니스가 겪은 일과 조금이라도 비슷하다면, 그들이 죽은 것도 이해가 갑니다." 일어나 무릎을 꿇고 있던 셀렌디스는 몸을 굽혀 네라스를 살폈다. "의식만 잃었군."

"카락스, 저쪽도..." 탈란다르는 탁자 위의 의식이 없는 남자 칼라이를 가리켰다.

카락스는 아직도 한 손으로 이마를 문지르면서도, 비틀거리지 않고 탁자로 걸어갔다. 그는 조심스레 장치를 제거했다. 엎드려 있던 남자는 바로 눈을 뜨고 숨을 뱉었다. "제 목소리 들리니까?"

그는 카락스와 탈란다르를 번갈아 보았다. "이게 무슨—"

"당신은 이제 안전하다." 탈란다르가 말했다.

"나는 혼자야!" 남자 칼라이는 오히려 더 괴로워 보였다. 그는 일어나서 뒷머리에 손을 댔다. 잘린 신경삭은 그대로였다. "왜 중단시킨 거지? 왜?" 그는 탈란다르에게 몸을 던졌지만, 너무 약해서 조금도 위협이 되지 않았다.

탈란다르는 영망으로 울부짖는 그를 손쉽게 집어 들었다. "이건 예상하지 못했군."

탈란다르가 카락스에게 말했다.

네라스는 건조하고 고통스러운 웃음을 뱉고, 한쪽 팔꿈치를 대고 몸을 일으켰다.

"바보에게서 거짓 희망을 빼앗으면 감사 인사를 받을 거라 생각한 거야?"

그렇게 표현하니, 탈란다르도 반박할 수가 없었다.

#

카락스는 란타리스의 건물에서 나가기 전에, 당장 관련이 있어 보이는 물건을 모조리 챙긴

후에 탐사정을 써서 이동시켰다. 그러고는 다음 날 와서 마저 정리할 생각으로 건물을 봉인했다. 여기까지 끝났을 때는 두통이 거의 사라진 후였다. 탈란다르는 얼른 나가서 그때까지도 몸부림을 치던 란타리스의 피해자를 치유사들에게 데려갔다. 그를 달리 어찌해야 할지, 아무도 몰랐던 탓이었다. 셀렌디스는 정지장과 네라스를 모두 호송했다. 네라스는 자신의 어깨에 기대게도 해 주었다.

카락스가 자신의 연구실에 마지막으로 도착했다. 아르타니스는 이미 셀렌디스의 보고를 듣는 중이었다. 네라스가 옆에서 드문드문 보태는 말에, 둘은 재미있어하기도 하고 짜증을 내기도 하는 모습이었다.

"덧붙일 말이 있나, 카락스?" 아르타니스가 물었다. 그의 시선에는 손에 잡힐 듯한 무게가 실려 있었다.

"없습니다. 일단은 이것들을 모두," 카락스가 로봇 손 하나를 휘둘러 작업대에 아무렇게나 쌓아 둔 물건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철저히 조사해야 하겠지요."

아르타니스는 란타리스의 육신을 담은 정지장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는 정지장을 껴다. 잠시 정신을 다잡은 란타리스가 그에게 시선을 고정하더니, 카락스가 흠칫 놀랄 만큼 강한 증오를 담아 말했다. "너. 배신자."

"나는 아무도 배신하지 않았다." 아르타니스가 차분하게 말했다.

"너는 네 종족의 영혼을 말살했다. 내가 구하지 않으면 그들의 육신도 그 뒤를 따르겠지." 란타리스가 쏘아붙였다. "프로토스는 홀로 목적 없이, 연결 없이 방황하기 위해 만들어진 종족이 아니다. 내가 구하지 않으면 그들은 죽을 것이야."

"하지만 네라짐은 천 년 동안 잘 살았지." 네라스가 조롱하는 투로 낱을 세우고 말했다.

"영혼 없는 변절자들." 란타리스가 뱀듯이 말했다. "칼라는 내 손에서 다시 태어날 것이다. 너희가 알던 것보다 훨씬 위대하게 말이지. 그리고 새로워진 칼라이는 비상하여—"

아르타니스가 정지장을 다시 켜다. "듣는 데는 관심이 없어 보이는군." 그가 말했다. "그렇다면 이 여자는... 칼라를 다시 만들려고 한 것인가?"

"궁극적으로는 맞습니다. 네라짐에게서 흠친 장치를 사용해서 공허에 망을 구축하려 한 겁니다. 이건... 터무니없는 장치입니다." 카락스가 말했다.

"그런데도 간절히 사용하고 싶어 했던 자들이 있었지." 아르타니스가 말했다.

네라스는 그 말에 놀라지 않은 듯했다. "아이어 프로토스는 그 오랜 세월을 가축으로 살아 왔으니, 자신들을 도살장으로 데려가는 거짓 지도자를 따르는 자들이 있는 것도 이상하지 않지."

"입조심해라, 네라스." 아르타니스가 말했다.

"이 여자의 말은 썩 성에 차지 않지만, 뜻은 이해가 가네." 탈란다르가 말했다. "우리 종족에게는 상처가 있네. 큰 고통은 절망을 낳지... 그것이 승산이 없는 전투에서 승리를 가져다줄 수는 있겠지만, 자기 파괴를 낳을 수도 있다네."

"절망에 빠진 사람들은 스스로를 치유하기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으니까요." 카락스가 말했다. 그는 이제 탈란다르의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그 장치들이 직접적인 사인이기는 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훨씬 깊었다. "물건을 고칠 때는, 고장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어렵지요. 이제 문제는 알았으니, 해결책을 찾으면 됩니다."

네라스가 코웃음을 쳤다. "위에서 남들의 인생을 '고쳐' 주는 건 불가능해. 각각 자기만의 길을 찾지 않으면 고군분투해 봐야 무의미하다고."

"당신들의 길로 가면 테룬과 에라니스 같은 이들이 더 죽어 나갈 거야." 카락스가 혐오감을 느끼며 말했다.

"결국 우리는 모두 혼자야." 네라스가 말했다.

"그건 우리의 길이 아니다." 셸렌디스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분노로 타올랐다.

"과거에도 그랬고 미래에도 그럴 것이다."

"칼라와의 연결을 끊었을 때 당신들의 길은 변했어." 네라스가 반박했다. "당신들은 아직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말이지."

"남들을 자신의 모습으로 다시 만들려고 해서는 합일을 이룰 수 없다, 네라스. *네*가 나에게 한 말이지." 셀렌디스가 말했다.

네라스는 검연쩍은 듯 고개를 숙였다. "지금 당신들이 스스로 던지는 질문은, 우리가 아이어에서 추방당했을 때 던졌던 질문이야."

"그건 곧 답을 알고 있다는 말이나?" 셀렌디스가 쏘아붙였다.

"이 난관 너머에서 답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지." 네라스가 셀렌디스를 올려다보며 자기답지 않게 부드러운 말투로 말했다. "네라짐은 새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일이 있다면, 우리 자신을 완전히 포기해야 하지 않는 한... 바람을 따라 굽히는 걸 마다하지 않아."

"우리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한다." 아르타니스가 말했다. "신분 제도의 철폐를 선언하고 칼라와의 연결을 끊은 것은 하나의 끝에 불과했음을 이제 알겠다. 새로 시작하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하나가 더 노력해야 한다."

"건설하는 것이 파괴하는 것보다 힘들지요." 카락스가 말했다.

"그리고 새로워진 세상에서는 아무리 힘들어도 각자 자기만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네라스의 말도 맞네." 탈란다르가 말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외부자가 정할 수는 없다. 직접 알아내야만 하지."

"자꾸 제자리에서 도는 기분인데요." 카락스가 조금 짜증이 나서 말했다. "전에 당신의 길은 친구들 덕분에 쉬워진다고 말씀하셨지요. 하지만... 제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 친구를 *만들어* 줄 수는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칼라 없이 서로 연결하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 그건 사실이지. 또한 정화자들은 너무 폐쇄적이더군." 탈란다르가 재미있다는 듯이 말했다. "우린 조립되어 나오는 완제품이거든."

아르타니스가 껄껄 웃었다. "창의적인 해결책이군, 옛 친구여. 하지만 정화자들 중에는—"

"프로토스 모두가 우리를 기꺼이 받아들이지는 않을 걸세." 탈란다르가 말했다.

"하나의 해결책으로 끝날 문제는 아니죠." 카락스가 말했다. 그는 네라스 쪽으로 손을 기울였다. "우리 종족이 계속 과거를 참고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바라본다면 그것도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군요. 그건 그나마 제가 나머지 차원장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함께 작품을 만들다 보면 그 나름의 공동체 의식이 생기지요."

"조금은 기꺼이 받아들이는 느낌이 들겠네." 네라스가 말을 보탤 때.

"공통의 목표를 향해 함께 노력하면 연결이 생겨나지. 연결은... 최소한 고독을 덜어 주고." 카락스는 셀렌디스가 자기 생각을 말하기를 기대하며 힐끗 보았다. 그녀는 관점이 또 달랐으니까. 하지만 그녀는 침묵을 지켰다.

"나도 이런 큰 문제를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할 만큼 바보는 아니다." 아르타니스가 말했다. "그대들이 생각한 방법을 차근차근 실천해라. 델람에게 우리를 한층 끈끈히 엮을 방법을 찾으라고 지시하겠다. 다음에 누가 길에서 벗어나면, 그를 잡을 준비가 되어 있는 이가 많아지도록 말이지."

#

아이어로 돌아오고 칼라가 사라지면서 저녁이 장례의 시간이 되었다. 프로토스는 태양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으니, 여기에는 본질적인 영적 대칭이 있었다. 이제 망자가 칼라에 있는 선조들에게 돌아갔다는 위안을 품을 수는 없지만, 대신 보다 모호하고 신비주의적인 생각을 위안으로 삼을 수 있었다. 생의 해가 지면 망자가 대우주의 별들에게 돌아가서, 그곳에서 새 삶을 찾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다.

셀렌디스는 이것이 새로운 여정, 새로운 전투로 넘어가는 과정이라 생각하며 위안했다. 대우주에는 아직 프로토스의 자리가 있었고, 떼려야 뗄 수 없는 고리가 있었다. 이것은 그 사실을 드러내는 하나의 수단이었다. 그런데도 마치 존재하지 않는 듯이,

공허하게 느껴졌다. 칼라와 연결이 끊긴 후로는 모든 죽음이 외로웠다. 그리고 이 죽음은 더 그랬다.

탈란다르에 따르면 테룬과 소원했던 그녀의 가족은, 그래도 테룬의 시신을 수습하는 책임을 받아들였다. 에라니스는 아무도 원하지 않았다. 아니, 이건 너무 적극적인 표현이다. 그의 시신을 수습하거나 그 최후의 여정을 지켜볼 만큼 관심이 있는 자가 없었다고 하는 편이 정확하리라. 그래서 셸렌디스가 그 짐을 직접 지기로 했다. 새로 만들어진 사이오닉 분광장 주위에 세워진 중앙 사원에서 장례식을 거행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셸렌디스는 그 대신, 자신이 그를 처음 발견했던 곳에 데려가기로 했다. 반쯤은 나머지 프로토스들이 자극을 받아 행동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리고 반쯤은 동료에 것처럼 관심이 없었던 그들을 질책하고 싶은 마음에서.

몇몇은 다가와서 무딘 호기심을 품고 그의 시신을 원자화할 장례실을 구경했다. 하지만 자리를 지킨 사람은 없었다. 셸렌디스는 홀로 서 있었다. 에라니스의 장례식 장소로 정한 그곳에 답이 없는 것만큼, 자신에게도 답이 없었다. 아르타니스, 카락스, 탈란다르, 심지어 네라스도 그들이 파악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이 있었다... 그런데 그녀에게만은 없었다. 그리고 그녀는 아르타니스가 자신에게 그 이상을 기대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 스스로도 자신에게 그 이상을 기대했다.

이것은 그녀가 평생 목도했던 수많은 죽음 중 하나일 뿐이었다. 셀렌디스는 이 죽음이 것처럼 자신의 혼에 깊이 가라앉은 이유를 알지 못했다. 너무나 외롭기 때문일지도, 너무나 무의미하기 때문일지도 몰랐다. 에라니스는 전투를 하다 영광스럽게 죽어 가지도, 노령으로 편안하게 죽어 가지도 않았다. 그는 자신이 불렀지만, 맞서 싸울 방법도 모르는 고통에 시달리며 죽어 갔다. 하나하나 생각할수록 그녀는 화가 났다. 그것은 대상이 없는 분노였다. 죽음을 자초한 그를 탓할 수도 있을 테고, 란타리스를 탓할 수도 있을 테지만, 셀렌디스의 지성은 본능적으로 그 상황을 여러 각도에서 바라보았다. 그로 하여금 자신의 피부를 손톱으로 찢게 만든 마지막 오작동 이전에도, 수많은 오작동이 있었다.

어쩌면 그것이 문제일지도 몰랐다. 오작동이 너무 많고, 뚜렷한 적은 없는 것.

그녀가 안식처로 내려가는 태양을 바라보고 있을 때, 공기가 갑작스레 흔들리며 누군가의 존재를 알렸다.

"내가 들은 바로 당신은 어느 모로나 감상적인 부류와는 거리가 멀던데, 셀렌디스."

네라스가 얼굴을 위로 향하고 말했다.

"소문은 진실과는 다르지."

"당신이 나를 반길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화가 난 목소리인데?" 네라스가

말했다. "내가 예의 없이 목숨을 구해 줘서 고맙다는 말을 안 해서 그런 거야?"

셀렌디스가 한숨을 쉬었다. "너한테 화가 난 게 아니야." 그리고 네라스가 자기를 지분거리는 것을 너무 좋아하니, 별수 없이 덧붙였다. "넌 네가 바라는 만큼 중요하지 않거든."

네라스는 웃음을 터뜨렸다. "가슴이 찢어지네. 그럼 누구 때문인데? 방에 있던 그 미치광이?"

셀렌디스는 손을 내저어 란타리스 이야기를 물리쳤다. 란타리스는 셀렌디스에게도 이해가 가는 적이었으며, 모두 함께 해결해 낸 문제였다. "이곳은 우리가 아이어로 돌아온 후로 에라니스가 살던 곳이다. 그런데 이곳의 아무도 그가 살든 죽든 신경을 쓰지 않았지."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어?"

"무관심한 모습을 보면 굳이 말을 들을 필요는 없지."

"그래? 혹시 당신들 칼라이가 남의 말을 듣는 법을 잊어버린 건 아니고?"

셀렌디스는 짜증이 솟아 근처에 있던 허름한 집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나이 들고 비쩍 마른 프로토스 하나가 그 앞의 상자에 축 처진 채 기대 있었다. "당신." 셀렌디스가 말했다. "죽은 자를 알고 있었습니까?"

"에라니스 말인가?" 그가 어깨를 으쓱했다. "잘은 몰랐지."

"그가 죽기 전에 그를 찾아온 사람은 없었습니까?"

"몰라. 아마 없었을걸."

셀렌디스는 네라스를 힐끗 보며 한 손으로 손짓을 했다.

네라스는 여전히 재미있다는 투로, 셀렌디스에게만 말했다. "칼라 때문에 진짜로 깊은 대화를 나누는 능력이 퇴화하셨군."

칼라는 그들에게 정서적인 합일을 가져다주었다. 칼라는 말과 말 아래에 깊은 바다처럼 흐르며 그들을 연결하는 공감대였다. 그것은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들에게는 오해하기 쉬운 말밖에는 남지 않았고, 칼라에 비하면 그것은 얄디얄게만 느껴졌다. 셀렌디스는 눈앞의 프로토스를 바라보며, 그의 말 아래는 얼마나 깊을까 생각했다. 그와 너무나 동떨어진 기분이 드는 자신이 싫고 답답하기까지 했다. 어떻게 하면 더 말하게 할 수 있을까? 셀렌디스가 그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그녀 역시 그에게 감정을 보여 주지 않았다. 날카로운 질문으로 전해지는 조바심이라면 모를까. 그녀는 오랜 고민 끝에 다음 질문을 완성하고,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다. "내가 보기에는 당신은 이 사건에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틀렸습니까?"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날카롭지는 않아도 아까보다는 강렬한 눈빛이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우리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기분 말이야."

셀렌디스는 말을 끊고 반박하고 싶은 충동이 들었지만, 꼭 참고 그가 답을 마저 말하기를 기다렸다. 그의 말은 느리고 중간중간 끊겼다. "우리는 모두 칼라이 계급이었지. 우린 칼라 속에서 우리의 자리를 알았어. 그런데 이제 칼라도 없고 칼라이 계급도 없지. 누구도 기사가 되려 했던 적이 없는데, 갑자기 우리 모두 기사라는 거야. 게다가 그런 슬픔과 혼란을 서로 나눌 수도 없어. 그런데 에라니스의 죽음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 어차피 모두 홀로, 혼란에 빠져 죽어 갈 텐데 말이야."

그의 말이 끝났다는 확신이 들었을 때 셀렌디스가 말했다. "델람은 당신들이 느끼는 고립감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지요. 당신들은 이제 혼자가 아닐 겁니다." 어떻게? 그녀도 아직은 답을 몰랐다.

"뭐가 변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 그가 말했다. "그래도 들어 줘서 고맙네."

셀렌디스는 에라니스의 시신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 네라스가 그 뒤를 그림자처럼 따랐다. "이건 내가 왈가왈부하지 못할 문제네." 네라스도 답답한 심정을 굳이 감추지 않고 인정했다. 예전의 칼라이 계급은 자신들이 세상에서 차지하는 자리를 다시 생각해야만 하는 처지로 몰린 것이었다. 지금까지 셀렌디스는, 자신은 쉽게 적응했다고 생각했다. 모두가 기사로 승급했고, 그녀는 이미 기사였다. 하지만 기사라는 말의 의미도 진화해야 했다.

"이것보단 검으로 공격하는 편이 훨씬 쉽지." 네라스가 맞장구를 쳤다. "이런 일을 해야 하는 건 부럽지 않네. 하지만... 당신은 끝까지 해낼 만큼 완강하다고 생각해. 그리고 나도 도울지도 몰라. 나만의 방식으로."

"뚝뚝 말든 우리가 친구라는 것을 확인할 때까지는 네게 감사하지 않을 거다." 셀렌디스는 말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답이 기다리고 있다고 했던 네라스의 다짐을 생각했다.

"당신이 날 벌써 이렇게 잘 안다니 진심 짜증이 나네." 네라스가 말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짜증이 전혀 묻어 있지 않았다.

"네가 말했던 대로다. 하나의 종족, 하나의 목적."

네라스가 웃음을 터뜨렸다. 평소의 조롱기가 없는, 놀란 듯한 웃음은 점점 따뜻해져 결국 음악처럼 변했다. 절대 말할 일 없지만, 셀렌디스의 마음에 드는 소리였다.

서서히 떠 가며 석양의 빛을 받아 분홍색, 주황색으로 변하는 구름을 바라보는 동안, 셀렌디스는 마음속 한 구석에 끈질기게 매달려 있던 말을 건져 올렸다. 공감을 전하는 칼라가 없으니,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던 말이었다. 아르타니스보다 네라스에게 말하기가 쉽다니, 희한한 일이었다. 어쩌면 그가 실망할까 봐 두려웠기 때문일지도 몰랐다. 그리고 네라스에게는 네라짐으로서 태어나서부터 배운, 귀를

기울이는 능력이 있기 때문일지도 몰랐다. "아르타니스 님은 칼라가 사라지면 우리가 자유로워질 거라 하셨다. 하지만 이것이 자유라면 왜 나는 슬퍼하고 있는 것이지?"

"둘 다 사실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네라스가 물었다. 셀렌디스가 듣기에 조롱의 기미는 없는 목소리였다. 네라스는 손을 뻗어 셀렌디스의 어깨에 가볍게 올렸다. 셀렌디스는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도 그 위로를 받아들였다.

카락스의 말이 옳았고, 또 틀렸다. 끝은 *뻘뻘*했다. 그렇다고 해서 쉬운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시작은 더욱 어려웠다. 하지만 셀렌디스는 힘든 전투를 기피하거나, 전투 기법을 새로 배우는 것을 기피한 적이 없었다. 칼라가 사라지고 가끔은 혼자라는 기분이 들기도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에게는 옛 친구가... 그리고 새 친구가 있으니까.

태양이 언덕 아래로 넘어가며, 하늘이 붉은색과 보라색으로 물들었다. 에라니스의 시신을 소멸시키는 의식을 시작하면서, 셀렌디스는 아까 대화를 나누었던 이가 마을 사람들 몇몇과 함께 의식을 지켜보려고 다가왔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장례실을 열었다. 가장 순수한 원소로 분해된 에라니스가, 빛줄기가 되어 하늘로 솟구쳤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것은 반짝이는 먼지가 되어 어둠 속에서 점점 나타나기 시작한 빛들 사이로 사라졌다. "이제 그는 별들 사이를 떠다니겠지."

글: Alex Acks

편집: Chloe Fraboni

프로듀서: Brianne Messina

세계관 자문: Madi Buckingham, Sean Copeland

크리에이티브 자문: Jeff Chamberlain, Kevin Dong, George Krstic, Ryan Quinn, Ryan Schutter

도움 주신 분: Thomas Floeter, Martin Frost, Felice Huang, Chungwoon Jung, Jaclyn Lo,

Alexey Pyatikhata, YuSian Tan